



This book is provided in digital form with the permission of the rightsholder as part of a Google project to make the world's books discoverable online.



This boo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By using a Creative Commons license, the rightsholder chose to give you more freedom to share or re-use the book than would otherwise be possible under copyright law.

This license allows distribution of this book with attribution but prohibits commercial use or derivative works. Terms available her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3.0/>

### **About Google Books**

Google's mission is to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to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Google Books helps readers discover the world's books while helping authors and publishers reach new audiences. You can search through the full text of this book on the web at <http://books.google.com/>

지은이: 코리 닥터로우 (Cory Doctorow)

옮긴이: 최세진

발행인: 박하림

발행처: [넷스피어퍼블리셔](#)

[CC BY-ND-NC 1.0](#)

이용자는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의 권리를 갖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 비영리

2013년 5월

ISBN 979-11-950241-3-1

# 코리 닥터로우

코리 닥터로우는 전자프런티어재단에 몸 담으며, 유엔과 기술표준 단체에서 특허 보유자와 저작자의 권리가 공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의 소설은 크랩하운드닷컴에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프린트 한 죄»는 네이처 매거진 2006년 1월호에 출판된 것이다.

# 한국어판

## 프린트 한 죄

내가 여덟 살 때 경찰들은 아빠의 프린터를 박살 냈다. 프린터가 뿜어내던 열기와 전자 레인지에 식품 포장용 랩을 돌렸을 때 나는 것과 비슷한 그 냄새 그리고 아빠가 프린터에 신선한 찐득이를 채워 넣을 때 열중하던 모습, 프린터에서 갓 구워져 나온 물건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다.

경찰들은 문으로 들어와 곤봉을 휘둘렀고, 그중 한 명은 확성기를 들고 영장을 낭독했다. 아빠의 고객이 밀고한 것이었다. 정보경찰은 밀고자에게 행동 강화제, 기억 보충제, 신진대사 촉진제 같은 고급 약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그런 것들은 현금보다 더 가치가 있지만, 누구든지 집에서 직접 프린트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큰 덩치들이 부엌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희희 소리가 나도록 곤봉을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때고 온갖 것들을 부숴버리는 위협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경찰들은 할머니가 예전에 살던 나라에서 오실 때 가져온 여행 가방을 박살 냈다. 소형 냉장고와 공기 정화기도 창문 밖으로 던져 부숴버렸다. 내가 기르던 귀여운 새는, 경찰이 큰 낫발로 새장을 짓발아서 엉킨 프린트 전선 뭉치로 만들어버렸을 때, 새장의 한쪽 구석에 몸을 숨겨서 겨우 목숨을 보전했다.

아빠, 그들은 아빠에게 무슨 짓을 했든가. 아빠가 체포되었을 때의 모습은 마치 럭비팀과 한 판 난투극을 벌인 것 같은 물결이었다. 그들은 아빠를 문밖으로 끌고 나가, 기자들에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보여준 후 차 안으로 던져 넣었다. 경찰 대변인은 아빠가 해적판 밀대 범죄 조직을 운영하면서 최소한 2천만 개 이상의 밀매품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극악한 범죄자로서 체포 시에도 불응하며 저항했다고 발표했다.

나는 거실에 남겨진 내 전화기로 이 모든 과정을 봤다. 나는 그 모습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지켜보면서, 어떻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초라한 단층집과 지독히 형편없는 살림살이를 보면서도 그걸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사는 집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프린트를 가져가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전시해서 기자들에게 보여주었다. 프린트가 놓여있던 부엌의 그 조그마한 성소(聖所)는 끔찍하리만큼 허전해 보였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납작하게 눌린 새장을 집어들어 불쌍한 새를 구해준 후, 프린터가 있던 자리에 믹서를 올려놓았다. 믹서도 프린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베어링과 구동 부품을 새로 프린트해야만 하는 상태였다. 프린트가 있었을 때는 프린트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언제든지 분해하고 조립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내가 18살이 되었을 때 아빠가 감옥에서 나왔다. 그동안 나는 아빠를 세 번 면회했다. 네 열 살 생일과 아빠의 천 살 생일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아빠를 마지막 본 것은 2년 전이었는데, 그때 아빠는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다. 아빠는 감옥 안에서의 싸움 때문에 다리를 절룩거리었고, 마치 턱 경련이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고개를 돌려서 어깨너머로 뒤를 쳐다봤다. 소형 택시가 우리를 예전에 살던 집의 현관에 내려주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집안으로 들어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처참하게 망가지고 절룩거리며 해골처럼 뼈뺀 마른 아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했다.

“래니.” 아빠가 나를 앉히며 말했다. “난 네가 영리한 애라는 걸 잘 알아. 이 늙은 아비가 어디를 가야 프린트와 찐득이를 구할 수 있을지 너는 알고 있겠지?”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는 눈을 감고 말했다. “아빠, 아빠는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장장 10년이라고요. 믹서나 약품, 노트북 컴퓨터, 예쁜 게 생긴 모자 따위를 프린트하는 데 10년을 감옥에서 보낼 작정이세요?”

아빠가 씩 웃었다. “래니, 난 바보가 아니야. 그동안 교훈을 얻었어. 모자나 노트북 컴퓨터 따위는 감옥에 갈 정도의 가치가 없어. 난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허접쓰레기를 프린트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아빠는 찻잔을 들고 와서, 위스키라도 되는 것처럼 훌쩍대더니 쪽들이키고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뿜었다. 아빠는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래니, 이리 와봐. 너한테 긴히 해줄 말이 있어. 내가 감옥에서 10년을 허비하며 결심한 걸 이야기해줄게. 이리 와서 이 어리석은 아비의 이야기를 들어봐.”

아빠에게 화를 낸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아빠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건 확실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셨던 걸까. “원데요. 아빠?” 나는 아빠에게 가까이 기댔다.

“래니, 나는 이제 프린터를 프린트할 거야. 더 많은 프린터를 만들어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줄 거야. 그거라면 감옥에 갇만한 가치가 있어. 그거라면 어떤 일을 당해도 할

만한 가치가 있어.”

# 원어판

## PRINTCRIME

The coppers smashed my father's printer when I was eight. I remember the hot, cling-film-in-a-microwave smell of it, and Da's look of ferocious concentration as he filled it with fresh goop, and the warm, fresh-baked feel of the objects that came out of it.

The coppers came through the door with truncheons swinging, one of them reciting the terms of the warrant through a bullhorn. One of Da's customers had shopped him. The ipolice paid in high-grade pharmaceuticals -- performance enhancers, memory supplements, metabolic boosters. The kind of things that cost a fortune over the counter; the kind of things you could print at home, if you didn't mind the risk of having your kitchen filled with a sudden crush of big, beefy bodies, hard truncheons whistling through the air, smashing anyone and anything that got in the way.

They destroyed grandma's trunk, the one she'd brought from the old country. They smashed our little refrigerator and the purifier unit over the window. My tweetybird escaped death by hiding in a corner of his cage as a big, booted foot crushed most of it into a sad tangle of printer-wire.

Da. What they did to him. When he was done, he looked like he'd been brawling with an entire rugby side. They brought him out the door and let the newsies get a good look at him as they tossed him in the car. All the while a spokesman told the world that my Da's organized-crime bootlegging operation had been responsible for at least 20 million in contraband, and that my Da, the desperate villain, had resisted arrest.

I saw it all from my phone, in the remains of the sitting room, watching it on the screen and wondering how, just how anyone could look at our little flat and our terrible, manky estate and mistake it for the home of an organized crime kingpin. They took the printer away, of course, and displayed it like a trophy for the newsies. Its little shrine in the kitchenette seemed horribly empty. When I roused myself and picked up the flat and rescued my poor peeping tweetybird, I put a blender there. It was made out of printed parts, so it would only last a month before I'd need to print new bearings and other moving parts. Back then, I could take apart and reassemble anything that could be printed.

By the time I turned 18, they were ready to let Da out of prison. I'd visited him three times -- on my tenth birthday, on his fiftieth, and when Ma died. It had been two years since I'd last seen him and he was in bad shape. A prison fight had left him with a limp, and he looked over his shoulder so often it was like he had a tic. I was embarrassed when the minicab dropped us off in front of the estate, and tried to keep my distance from this ruined, limping skeleton as we went inside and up the stairs.

"Lanie," he said, as he sat me down. "You're a smart girl, I know that. You wouldn't know where your old Da could get a printer and some goop?"

I squeezed my hands into fists so tight my fingernails cut into my palms. I closed my eyes. "You've been in prison for ten years, Da. Ten. Years. You're going to risk another ten years to print out more blenders and pharma, more laptops and designer hats?"

He grinned. "I'm not stupid, Lanie. I've learned my lesson. There's no hat or laptop that's worth going to jail for. I'm not going to print none of that rubbish, never again." He had a cup of tea, and he drank it now like it was whisky, a sip and then a long, satisfied exhalation. He closed his eyes and leaned back in his chair.

"Come here, Lanie, let me whisper in your ear. Let me tell you the thing that I decided while I spent ten years in lockup. Come here and listen to your stupid Da."

I felt a guilty pang about ticking him off. He was off his rocker, that much was clear. God knew what he went through in prison. "What, Da?" I said, leaning in close.

"Lanie, I'm going to print more printers. Lots more printers. One for everyone. That's worth going to jail for. That's worth anything."